

태국 남부의 분쟁: 종족 분쟁인가 종교 분쟁인가?

Ethnic or Religious Cleavage? Investigating the Nature of the Conflict in Southern Thailand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8(1), April 2006.

S. P. Harish (Associate Research Fellow at the Institute of Defense and Strategic Studies,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요약>

최근 몇 년간 태국 남부의 알라, 빠따니, 그리고 나라티왓 지방에서 폭력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불안 요소는 탁신 수상의 재임 기간을 위협하고 있다. 언론뿐만 아니라 동시대 연구들도 분쟁을 불교도와 무슬림 간의 갈등으로 묘사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종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타이인과 말레이인 간의 불화로 다루었던 과거의 연구와 확연하게 다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주로 “종족적” 반목에서 압도적으로 “종교적인” 분쟁으로의 전환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종교적 요소가 점차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남부의 폭력 사태를 순전히 불교도와 무슬림 간의 것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한걸음 나아가서 폭동 사태에는 타이인-말레이인 종족간 구분이 여전히 깊게 뿌리내려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서론

2004년 1월에 태국 남부에서 시작한 폭력의 물결은 현재까지 약해질 기미 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2,000회에 가까운 공격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유혈 사태는 1,000명에 가까운 인명을 희생시켰다. 언론 보도는 폭동 사태의 성격을 이슬람적인 것으로 나타내며 이들의 공격을 불교도에 대한 복수로 묘사하고 있다. 태국 남부에서 폭력을 일으킨 자들은 점점 “이슬람” 혹은 “무슬림” 민병대로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태국 남부의 불안에 기여하는 당사자들이 항상 불교도와 무슬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타당한 것일까? 한 세기가 넘도록 지속된 분쟁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태국 남부 분쟁과 관련하여 종교적 요소가 개입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현상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학계에서는 태국 남부의 분쟁을 국제 테러리즘의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시도하는데, 이것은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테러 단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으로 이어졌다. 몇몇 분석가들은 태국 남부의 분쟁을 지역 단위의 “지하드”와 연관시킨다. 그 외에 최근의 연구들도 분쟁의 발발 이후 불교와 이슬람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그들은 종교가 소요가 시작되었을 무렵부터 중대한 요소로 작용해 왔는지에 대해서 혹은 그

렇지 않을 경우 그 변화의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태국 남부의 소요에 대한 초기 연구는 종교에 비중을 덜 둔다. 그들은 그 대신 타이인 Thai과 말레이인 Malay의 대립 관계를 고려한다. 몇몇 연구는 그 변화를 인정하여 태국 남부 분쟁에 있어서 종족성과 종교 간에 분석적인 구분을 둔다. 타이인 혹은 말레이인의 구분은 일차적으로 언어나 교육 등의 문화적 상징에 의해 이루어진다. 불교도인가 아니면 무슬림인가는 구체적으로 불교와 이슬람에 의거하여 구분된다. 이러한 속성은 소요와 관련된 반란 단체의 목적, 요구사항과 행동뿐만 아니라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사건들과 국가 정책의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 된다.

이러한 종족성과 종교 간의 분석적 차이는 분쟁에 관여된 대립 세력들의 정확한 분류를 더욱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몇몇 학자들은 타이인과 불교도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고 말레이인이 곧 무슬림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불교도가 타이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무슬림 개념이 말레이인보다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폭동에 관여된 두 대립 세력의 불분명한 구분은 결함 있는 정책의 이행과 폭력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논문의 목표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타이인과 말레이인” 간의 주로 종족적 차원의 불화가 “불교도와 무슬림” 간의 종교적인 분쟁으로 어떻게 전환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폭동 사태를 단지 종교적인 범주로만 다루는 것의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반면에, 분쟁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을 것이다. 논문은 오히려 그러한 불만이 분쟁 당사자들을 만들어내는 데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더욱 관심을 둔다.

본 논문의 주된 논점은 태국 남부의 분쟁을 순전히 불교도와 무슬림 간의 문제로 다루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분쟁에 있어서 종교적 요소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동 사태에는 종족적 분열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 논문은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태국 남부 분쟁의 기원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두 번째 부분은 폭동에서 드러난 타이인과 말레이인 간 종족적 분열에 대해 언급한다. 세 번째 부분은 반란에 있어서 불교와 이슬람 간의 종교적 구분의 발생과 발달을 조사한다. 네 번째 부분은 타이인-말레이인 불화가 불교도-무슬림 적대관계로 어떻게 전환되었는지를 설명하며 또한 언론이 그 분쟁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조사한다. 마지막 부분은 태국 남부의 분쟁이 어느 정도까지 전적으로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접근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 분쟁의 기원

빠따니 Pattani, 알라 Yala, 나라티왓 Narathiwat, 그리고 사툼 Satun 지방은 한 때 북부의 타이 왕국과 남부의 므라카 Malacca 술탄국에 둘러싸인 가운데 “빠따니 라야 Raya” 즉 “대대 빠따니”의 일부를 이루었다. 이웃하는 두 나라의 영향력 하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의 영역은 달랐다. 즉 빠따니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므라카에 가까웠으나, 정치적인 측면

면에 있어서는 태국의 주권 하에 놓여 있었다. 1511년 므라카가 포르투갈인들에게 패배한 이후 더욱 왕성해진 태국의 남쪽으로는 확장으로 인해, 말레이족 술탄국인 빠따니는 태국에 대해 조공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그들은 Bunga Mas라고 하는 금화金花를 조공으로 바쳐야 했다. 말레이 술탄은 이를 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나타내는 선물로 간주했으나, 후자는 이를 충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

빠따니의 말레이 통치자는 태국과의 군신 관계를 몹시 싫어하여 언제든지 후자가 약하다고 보여질 때는 조공을 바치는 것을 중단했다. 빠따니의 최초의 봉기는 1630년과 1633년 사이에 일어났다. 1767년에 버마인들이 태국의 수도인 아유타야Ayutthaya를 약탈했을 때에도 충돌이 발생했다. 빠따니의 빈번한 반란에 화가 난 국왕 라마Rama 1세는 군신관계를 폐지하고 1785년에는 말레이 술탄국들인 크다Kedah, 클란탄Kelantan, 트렝가누Trengganu와 더불어서 빠따니를 타이 왕국에 흡수하기 위해 출정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빠따니의 기존 통치자들은 밀려나게 되었고 태국에 충성스러운 지도자들이 새로 세워졌다. 이로 인해 1789년~1791년에 라자 텡쿠 라미딘Raja Tengku Lamidin의 봉기와 1808년 그의 후계자인 다토 푹칼란Dato Pengkalan의 봉기가 발생했다. 방콕 정부는 이러한 도전을 물리친 후 이 지역을 일곱 개의 작은 지방으로 나누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크다에서 또 분쟁이 발생하여 1832년과 1838년에 독립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로써 크다 지방도 쪼개져, 오늘날의 사똘 지방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20세기 초기까지 태국에 대한 저항은 귀족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타이인과 말레이인 간에 혼인을 통한 유대관계가 맺어졌으며 그들의 관계는 종족적 또는 종교적 결속보다는 권력 관계에 의해 좌우되었다. 19세기에 라마1세가 말레이 왕국을 타이인의 직접적 관할 아래 두고자 내린 결정이 기존 엘리트층을 고립시키자 반대 연합세력이 조직되었다. 연합된 세력은 미미하게나마 말레이 종족적 동지애의 조짐을 보였으나 태국에 대한 봉기는 여전히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독립 내지는 자치에 대한 모색에서 나온 것이었다.

## 타이인과 말레이인 간 갈등의 발생

말라야Malaya에 주둔한 영국군의 위협이 점차 증가하자 췌라롱꼰Chulalongkorn 왕은 동화를 촉진시키고 남부 지방의 행정을 방콕 통치하에 중앙화하기로 결정했다. 1901년 “일곱 지방의 구역” 행정 조직을 신설하여 남부 지방을 관리하려는 것도 이러한 전략에서 나왔다. 이런 조치는 말레이인 통치자와 지역 내의 귀족들을 소외시켰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방콕 정부가 제공한 배상금을 받아들였다. 당시 빠따니의 왕이었던 텡쿠 압둘 카디르Tengku Abdul Kadir는 이런 변화에 저항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로, 저항으로 인해 감금되었으나 몇 년 후 풀려났으며 정치와의 인연을 끊을 것을 약속하는 보증서에 서명했다. 영국 또한 행정적인 재편성에 반대하여 결국 1909년 방콕 정부가 크다, 클란탄, 프를리스Perlis와 트렝가누를 포기하기로 한 조약을 태국과 체결했다. 이는 비록 말레이인들의 정치적 분리로 이어졌지만 국경 양쪽에 위치한 말레이 지역사회 간의 문화적, 상업적, 그리고 개인간 유대관계는

지속되었다.

1910년 이후 태국 정부는 타이어의 사용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말레이인들에게 타이어를 교육시키기 위한 강력한 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남부 지방에서 주기적인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상류층은 타이어의 도입으로 인해 말레이어와 말레이 문화가 침식될 것을 우려했다. 말레이 어린이들을 태국 초등학교에 입학할 것을 의무화하는 초등 교육법이 1921년에 도입된 직후 1922년에 거대한 폭동이 발생했다. 1915년에 클란탄으로 이주한 텡쿠 압둘 카디르가 이 폭동을 지휘했다.

1932년 태국의 군주제는 막을 내렸다. 태국은 미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으며 이 시기 동안 말레이인은 하원과 상원의 의석을 차지했다. 허나 이러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고 1938년 피분송크람Phibul Songkhram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태국은 이내 군부 지배 하에 놓였다. 타이 민족주의의 발달과 동시에 피분은 말레이인들을 태국 국민국가로 동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는 타이어의 사용과 교육을 통해 말레이인들을 문화적으로 통합하려고 했으나 불교로의 개종은 시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말레이인들을 무력으로 동화하려는 노력은 실패하고 말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태국은 일본군을 후원한 반면에 태국 남부의 엘리트층은 말라야의 영국군을 지지했다. 영국 지지에 앞장선 사람 중에는 텡쿠 압둘 카디르의 아들인 텡쿠 마흐뭇 마히드딘Tengku Mahmud Mahydeen도 있었다. 태국 당국에 대한 저항은 점차 증가하여 1945년 11월에는 전 크다의 왕의 아들인 텡쿠 압둘 잘랄Tengku Abdul Jalal을 비롯한 다른 빠따니 엘리트들이 영국 정부에 로비하여 남부 지방들을 태국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청원은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빠따니는 실질적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말레이 왕들의 통치를 받아온 말레이인 나라이지만, 태국의 속국이 된 것은 50년 정도에 불과하다. 이제 연합국들은 이 나라를 말레이인들에게 도로 돌려주어서 반도 내의 다른 말레이인 나라들과 통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태국 남부를 동남아시아의 다른 말레이인 나라들과 결합시키려는 이 생각은 남부 분쟁에 있어서 타이인과 말레이인 간 종족적 구분의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전쟁이 끝난 후, 영국은 태국에 대한 징벌로<sup>1</sup> 빠따니와 사똘을 합병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의 계획은 증대하는 공산주의의 위협과 미숙한 동남아시아 경제를 안정시킬 필요 등의 전략지정학적 고려로 인해 번복되었다. 미국의 압력 또한 영국이 독립적인 빠따니 국가 설립이나 말라야로의 편입을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태국 당국에 대해 날로 증대하는 불만은 결국 남부 지방의 분쟁이 구조화된 성격을 띠게 했다. 1940년대에 들어서 GAMPAR(Gabungan Melayu Pattani Raya 또는 大빠따니 말레이인

---

<sup>1</sup> (역자주) 제2차 세계대전시 태국이 일본과 동맹하여 영국에 선전포고하고 일본군의 전쟁행위에 협력한 것에 대한 징벌을 가리킨다.

협회Association of Malays of Greater Pattani)는 태국 남부의 말레이인의 연합을 위한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로 부상했다. 이 단체는 20세기 초 남부 지방행정의 중앙집권화 당시 주변부로 밀려난 텡쿠 마흐뭇 마히드딘과 여타 말레이인 엘리트들이 이끌었다. GAMPAR의 목표는 “태국 남부의 말레이인과 말라야에 있는 그 자손들을 결합시키고,” ”태국 남부의 말레이 문화를 부흥시키고 교육을 개선하는 것” 등이었다.

GAMPAR의 목적은 태국 남부와 말라야 연방 간 합병을 외치는 말레이인들의 주장을 명백하게 옹호했다. 이슬람은 주된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GAMPAR는 전술적인 결정으로 인해 몰락하게 되었다. 이들은 말레이 좌파 민족주의자들과 연합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로써 영국에 대해 정치적으로 대립하게 되었다. 1948년에는 영국과 태국 간에 국경 지대에서의 공산주의 활동을 봉쇄하는 협정이 체결되었다. 상당수의 GAMPAR 지도자들이 체포되었으며, 이는 조직의 붕괴로 이어졌다.

194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당시에 빠따니 이슬람위원회Pattani Islamic Council 의장이었던 하지 술롱Haji Sulong은 알라, 빠따니, 나라티왓, 사똌 지방을 대표하여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하여 태국 정부에 제출했다. 문화적 변화를 위한 청원 중에는 방콕 정부가 “말레이 문화권인 4개 지방 내 이슬람 학교에서 4학년까지 말레이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할 것”과 “정부 기관에서 말레이어를 타이어와 병용할 것”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행정상의 변화를 위한 청원 내용으로는 “태국 정부가 빠따니, 알라, 나라티왓, 사똌 4개 지방을 다스리는 전권을 가진 고위 인사를 임명해야 하되 이 사람은 이들 지방에서 태어난 무슬림이어야 할 것”과 “4개 지방 내 정부 공무원의 80%는 지방 내에서 태어난 무슬림이어야 할 것”이 포함되었다. 청원서는 태국 내 무슬림 중 아무라도 남부 지방의 행정장이 되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태국 남부의 대다수는 말레이인이고 또 4개 남부 지방에서 태어난 무슬림이 행정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그들은 실제로는 말레이인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수개월 후 하지 술롱을 체포했고 빠따니 이슬람위원회를 해체해버렸다. 이로 인해 저항 운동이 빠따니와 주변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하지 술롱은 재판 없이 수개월 동안 구류되었다가 1년 가까이 후에 3년 반의 징역을 선고 받고 수감되었다. 그는 1952년에 석방된 이후 빠따니로 돌아갔으나 1954년에 실종되었는데, 태국 경찰에 의해 익사 당했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

1960년대 초에는 우스타즈 카림 하지 하산Ustaz Karim Hajji Hassan이 이끄는 민족혁명전선Barisan Revolusi Nasional(BRN)이 새로 등장했다. BRN의 목표는 말라야 연방에 연합하고자 한 GAMPAR의 목표보다 광범위했다. BRN의 목표는 태국 남부를 동남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범말레이 국가에 통합시키는 것이었다. BRN은 태국 남부의 말레이인들을 하나로 묶어 동남아시아 내의 타 말레이인들과 단결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BRN 내의 파벌 싸움은 그들의 태국 정부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켰다. 말레이시아에 대항하여 인도네시아가 일으킨 콘프론타시Konfrontasi 즉 대결 국면으로 인해 BRN은 인도네시아를 지지하는 그룹과 말레이시아를 지지하는 그룹으로 분열되었다. BRN은 또한 말라야공산당Communist Party of Malaya이 승리할 경우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전략적인 목적으로 그들을 지원했다. 하

지만 이들의 도박은 성공하지 못했고 그룹 내의 분열을 가져왔다. BRN의 전통적인 지도자들은 말레이인들의 목적과 공산주의 이념이 동질적이 아니라고 보아 그들과 협력하는 것을 반대했다. 게다가 BRN은 공산주의와의 연합으로 공산주의를 공동의 위협으로 보았던 거의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정면으로 대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타이인과 말레이인 간 분쟁은 두 가지 핵심 요인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전한 말레이 민족주의는 태국 통치에 대항하는 반란 단체들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그것은 또한 GAMPAR와 BRN과 같은 반란 단체들로 하여금 말라야에 활동 근거지를 설립하고 그들의 영토회복주의적 동기를 내세울 수 있도록 해주었다. 둘째, 태국 남부의 말레이인들은 태국 정부의 정책 중에서도 특히 언어와 교육에 대한 정책을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침략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타이어를 남부 지방에 강요한 것은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이로 인해 말레이 언어와 문화가 희석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분쟁의 종족적 성향은 유지될 수 없었으며 196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스러지기 시작했다. 종교가 이제 분쟁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행하기 시작하여 불교도와 무슬림 간 분열이 표면화되도록 했던 것이다.

### 불교도 대 무슬림 간 분쟁의 발달

GAMPAR의 붕괴와 BRN 저항의 실패는 1970년대의 분쟁에서 종교적 성격의 강화를 촉진시켰다. 이슬람은 반란 세력을 불러모으는 새로운 요인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종교적 구분은 하룻밤 사이에 뿌리내린 것이 아니었다. 1940년대에 연달아 발생한 사건들은 분쟁에 있어서 종교적 분열을 강화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방콕 정부는 당시 지역 내에서 증가하던 말레이 민족주의에 대해서 인식하여, 빠따니, 알라, 나라티왓, 사똘의 주민들이 말레이 민족주의의 프로파간다에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태국 남부에서 말레이인이라는 관념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전략에 착수했다.

타이족ethnic Thai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한편 태국에 대한 충성을 장려하기 위해 태국 남부의 사람들은 태국 내 나머지 무슬림들과 함께 “타이 무슬림Thai Muslim”으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1944년에 정권을 잡은 자유타이Free Thai 정부는 피분 송크람 하에 실행된 수많은 압제 정책들을 뒤집었으며 무슬림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했다. 1945년 5월에 통과된 이슬람 후원법Patronage of Islam Act은 태국 내 모든 무슬림의 종교적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기 위해 찰라랏차몬뜨리Chularajamontri라고 불리는 직위를 신설했다. 방콕 정부는 남부의 주민이 태국 내 나머지 무슬림들과 함께 분류되면 남부 지방의 동화도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는 태국 남부 사람들의 운명을 태국 나머지 지역의 무슬림들과 묶기 위한 시도였다.

GAMPAR와 BRN과 더불어 태국 남부에서 활동한 조직으로 텅쿠 압들 잘랄이 이끈 BNPP(Barisan Nasional Pembebasan Patani)가 있다.<sup>2</sup> 이슬람은 그들의 정책 중 하나였으며 이를

---

<sup>2</sup> 학자들 간에 BNPP가 BRN에서 떨어져 나온 조직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에 대해 견해가 일치하지

활용하여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과 아랍연맹Arab League의 지원을 받아내고자 했다. 게다가 BNPP는 1976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7차 이슬람 외무부장관 회의에서 “태국 남부 무슬림들의 생존 투쟁The Muslim Struggle for Survival in South Thailand”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준비하여 국제 이슬람 사회의 지원을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슬람 국가와 단체로부터의 지원을 받고자 한 일련의 노력들은 아무런 실질적인 원조로 구체화되지 않았고 BNPP는 점차 쇠퇴했다. BNPP의 붕괴와 함께 태국 남부의 종교적 폭동은 잠시 하락세를 겪었으나 이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분쟁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남부 지방의 행정은 말레이인들의 주된 원망사항 중 하나였다. 알라, 빠따니, 나라티왓의 관료들은 대부분 말레이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타이인으로, 이들은 말레이 주민에 대해 모욕적으로 대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태국 정부는 1960년대에 들어서 부지불식간에 태국 남부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을 실행했다. 1961년, 사릿 타나랏Sarit Thanarat 육군 원수는 뿐독pondok 즉 이슬람 종교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로 뿐독 교육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조치로 인해 태국 정부는 뿐독 교과과정을 일정 부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남부 지방에서 행정직에 종사할 사람들이 배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 하지만 뿐독을 “이슬람을 가르치는 사립학교”로 변형시키는 이러한 조치는 뿐독의 경건한 지도자들인 톡 구루tok guru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으며, 말레이-이슬람 사회의 엘리트층을 배출하는 전통적인 과정을 전복시키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으로 인해 빠따니가 이슬람 교육의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잃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서 종교적 교육을 받기 위해 탈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태국의 군사정권은 1973년 붕괴했으며 짧은 민주주의 시대가 그로부터 3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지난 수십 년간 태국 남부의 말레이인들에 대한 편견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게다가 중동에서 이슬람 교육 증명서를 받고 태국으로 돌아온 많은 학생들은 자신들이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그들은 종교적인 교육을 받았고 이슬람 국가들의 무슬림 운동과 폭넓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말레이 사회에서는 좋은 평판을 얻었지만, 태국의 관료사회에서는 지도적 지위로 진출하는 것이 차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빠따니 연합해방기구Pattani United Liberated Organization(PULO) 또는 Pertubohan Persatuan Pembebasan Pattani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반란 단체가 등장했다. 이 단체는 1960년대 말에 공식적으로 조직되었고 그 우두머리는 퉁쿠 비라 코타닐라Tungku Bira Kotanila였다.<sup>3</sup> 이슬람은 PULO 교리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었으며 그들은 “빠따니의 자유와

---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Omar Farouk. “The Historical and Transnational Dimensions of Malay-Muslim Separatism in Southern Thailand.” In Lim Joo-Jock and Vani S. eds. *Armed Separatism in Southeast Asia*.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84: 240과 Wan Kadir Che Man. *Muslim Separatism: The Moros of Southern Philippines and the Malays of Southern Thailand*.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98-99 참고.

<sup>3</sup> Omar Farouk. *ibid.*: 242 등의 연구는 PULO의 형성을 1967년으로 잡는다.

이슬람 공화국의 탄생을 위해 싸웠다.”<sup>4</sup> GAMPAR나 BRN과는 달리 PULO는 분쟁에 있어서 “이슬람” 관념을 “말레이” 관념보다 강조했다. 이로써 그들은 조직의 최고 권력을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지 메카에 두고, 매년 있는 하지haj 순례 기간 동안 회원과 동조자를 끌어 모을 수 있었던 것이다.

1975년 12월 빠따니의 중앙 모스크 앞에서 마을 사람 5명을 죽인 태국 보안부대에 항의하는 거대한 시위가 발생했다. 이 시위의 배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PULO는 희생자들을 “말레이인”보다는 “무슬림”으로 조작하여 내세웠다. 그들은 신성한 꾸란의 구절을 읊거나 중요한 이슬람 명절인 12월 11일에 집회를 개최하는 등 종교적인 상징을 잘 이용하여 7만 명에 가까운 시위자들을 동원했다. 이 사건은 그 조직의 사회적 영향력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PULO는 1977년 9월에 태국 왕실이 알라의 한 뿐독을 방문했을 때 발생한 폭탄 테러에 관여했으며 1979년 10월 알라의 한 철도역에서 터진 폭탄 테러를 주도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차이왓 사타아논Chaiwat Satha-Anand의 연구에 의하면, 1976년 10월과 1981년 사이에 태국 남부에서 발생한 반란적인 테러 공격의 대부분은 그 배후에 PULO가 있었다고 한다. 1980년에는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주목할 만한 두 번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들은 남부 분쟁에서 종교적 분열을 조작하려는 PULO의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1980년 7월 초, 12명의 PULO 멤버들이 나라티왓과 방콕 사이를 운행하는 버스를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들은 불교도 승객들을 무슬림들로부터 갈라놓았다. 4명의 불교도는 총에 맞고 사망했다. 1달 후, PULO는 빠룻Pa-Lud 도로를 달리는 차 몇 대를 멈춰 세웠다. 불행한 승객들은 한 명씩 차례대로 불교도인지 무슬림인지 질문 당했다. PULO는 무슬림들을 풀어준 반면에 5명의 불교도는 살해했다.<sup>5</sup>

1980년대에 이르러 BRN은 BRN Coordinate, Congress와 Ulama로 분열되었다. 이 분열 단체들의 목표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하지Haji M.이 이끄는 BRN Coordinate는 뿐독을 통해 지원을 모으는 식으로 일했다. 게다가 PULO 내의 분열로 인해 1995년에 아롱 물렝A-rong Muleng과 하지 압둘 로흐만 바조Haji Abdul Rohman Bazo가 이끄는 New PULO라는 단체가 생성되었다. 이 분파의 목표는 모 단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PULO와 BRN 분파들 간의 전략적 연합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련-아프간 간 전쟁의 종식 또한 태국 남부의 소요사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1995년 소련-아프간 전쟁 베테랑인 나소리 새생 Nasori Saesaeng은 GMIP(Gerakan Mujahideen Islam Pattani)를 조직했다. 태국 남부에 이슬람 국

<sup>4</sup> Chaiwat Satha-Anand. *Islam and Violence: A Case Study of Violent Events in the Four Southern Provinces, Thailand*. Tampa: 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University of Southern Florida, 1986: 15-16.

Peter Chalk는 PULO의 이데올로기를 UBANGTAPEKEMA라고 하는데 이는 종교, 인종/민족주의, 조국과 인도주의 등을 포함한 것이다. Peter Chalk. “Separatism and Southeast Asia: The Islamic Factor in Southern Thailand, Mindanao and Aceh.” *Studies in Conflict and Terrorism* 24(4), 2001: 243.

<sup>5</sup> Chaiwat Satha-Anand. *ibid.*: 13.



가를 설립한다는 목표를 가졌다는 점에서 PULO와 유사한 GMIP는 그 목적 추구의 일부로서 오사마 빈 라덴 Osama bin Laden을 지원하기도 했다. BERSATU와 같은 우산조직에 대한 보고도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목적은 여전히 불분명하나 그 산하 그룹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PULO와 GMIP와 같은 조직의 부상으로 인해 태국 남부 분쟁의 종교적 성격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들은 방콕 정부에 대한 투쟁에 있어서 이슬람을 강조했고 따라서 그들의 적을 타이인이 아닌 불교도로 보았다. 빠따니, 알라, 나라티왓 지방에서의 폭력은 더 이상 “타이인과 말레이인 간의 대립”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것은 점점 더 “불교도와 무슬림 간의 대립”의 문제로 간주되었다. 그렇다면 원래는 “종족적인” 반목에서 “종교적인” 것이 압도적인 분쟁으로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 “종족적 분쟁”에서 “종교적 분쟁”으로의 전환

이러한 변화에는 네 가지 핵심 원인이 있다. 첫째, 태국 정부는 남부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서 말레이인이라는 관념을 지우고자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태국 당국은 동남아시아에 확산되고 있는 말레이 민족주의가 남부 지방들의 태국 국민국가에 대한 충성을 쇠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태국에서의 종족간 구분을 없애려는 시도로 태국 당국은 태국 내 모든 무슬림들을 “타이 무슬림”으로 통칭하는 정책에 착수했다. 종교적 다양성을 수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태국 남부의 분쟁에 있어서 종교적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었다. 불교가 타이인이라는 관념과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까닭에,<sup>6</sup> 모든 무슬림들에게 붙여진 “타이 무슬림”이라는 표현은 “당신은 타이인이지만 무슬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타이인”이라고 불리는 것으로는 무슬림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둘째, 반란 단체들에 대해 말레이시아가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분쟁의 말레이 종족적 요소를 약화시켰다. 당시 말레이시아 수상인 텡쿠 압둘 라흐만 Tengku Abdul Rahman은 태국 남부의 반란 조직들을 후원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반란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레이시아의 공식적 입장은 아세안의 타 회원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기초한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말레이시아가 자국에 대한 공산주의의 위협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태국의 지원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태국 남부의 반란 세력에게 지원 기지 support bases 형태로 원조를 제공한 곳은 클란탄 주를 통제하는 야당인 빠스 PAS (Parti Islam Se-Malaysia)과 이의 전신인 PMIP (Pan-Malay Islamic Party)가 유일했다. 많은 말레이시아인들은 자국이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지지했다. 하지만 이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태국 남부의 반란 세력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

셋째, 학생들이 보다 높은 이슬람 교육을 받기 위해 중동 지역으로 간 것은 태국 남부

<sup>6</sup> 불교를 태국의 국교로 만들려는 압력이 1997년 태국 헌법 제정 때 있었다. 이러한 요구가 성취되지는 못했지만, 불교는 여전히 타이인이라는 관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Duncan McCargo. “Buddhism, Democracy and Identity in Thailand.” *Democratization* 11(4), 2004: 164-67.

의 젊은 세대의 종교적 정체성을 더욱 강화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 걸친 이슬람의 부흥에 영향을 받은 이들의 상당수는 이슬람 교육의 중심지에서 공부하기를 원했다. 그 중 어떤 자들은 이슬람 협회들이 제공한 장학금에 유혹되기도 했다. 1970년대 이후 태국 남부에서의 이슬람 교육을 위한 재정 원조가 증가된 점도 있었다. 예를 들어, 알라 이슬람대학 Yala Islamic College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이외에도 세계무슬림청년회의 World Assembly of Muslim Youth, 이슬람개발은행 Islamic Development Bank, 국제이슬람 구제기구 International Islamic Relief Organization 등의 원조로 설립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빠따니의 뿐독들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를 위해서 기금을 내기도 했다. 앞에서 언급한 뿐독 교육개선 프로그램 또한 많은 뜻 구루들이 해외에서 종교 교육을 받는 데 기여했다. 이런 것들은 태국 남부에서 이슬람 의식을 강화했다.

넷째, 9·11 테러 이후의 정세와 지역 분쟁에까지 미치는 세계적 테러리즘에 대한 공포가 태국 남부에서의 소요에 종교적 색채를 더하는 데 기여했다. 비록 외부 테러조직과의 직접적인 유대관계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2003년 8월 지역적 테러 조직인 즈마 이슬라미야 Jemaah Islamiyah의 행동대장인 함발리 Hambali의 체포는 그러한 가능성을 고조시켰다. 게다가 소련-아프간 전쟁의 참전용사들이 이끈 GMIP의 등장은 더욱 폭넓은 종교적 분쟁의 위험성을 증대시켰다. 2004년 4월 28일에 빠따니 크루세 Krue Se 모스크에서 발생한 전투는 분쟁의 종교적 성격을 강화했다. 그 날 한 무리의 남자들이 크루세 모스크에서 기도를 마치고 난 후 가장 가까운 보안 검문소를 공격했다. 보안부대가 반격하자 민병대원들은 크루세 모스크로 후퇴했다. 모스크를 포위한 태국군 병사들은 민병대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이어진 전투와 같은 날 태국 남부의 다른 곳에서 일어난 공격으로 100명이 넘는 반란군과 5명의 보안군이 사망했다. 이 공격의 감행 장소와 날짜는 임의로 선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빠따니의 유서 깊은 크루세 이슬람사원은 일찍이 있었던 남부 지방의 저항에 대한 증인이었다.

## 분쟁에 대한 언론의 시각

앞의 세 부분에서 다루었듯이, 태국 남부 분쟁에서의 종교적 요인은 지난 30년 사이에 크게 강화되었다. 종교적 측면이 부각됨으로써 분쟁이 전적으로 불교도와 무슬림 간에 일어난 것으로 보는 관점이 나타났다. 언론은 이런 경향이 지속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태국 남부의 폭력 사태에 대해 보도할 때면, 종교가 사건에 별로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적 시각이 강조되었다. 최근에 있었던 두 번의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2004년 10월 25일 딱바이 Tak Bai 구에서 가장 비극적인 폭력 사건 중의 하나가 발생했다. 그것은 처음에 한 경찰서 밖에서 시위로 시작되었지만 80명 이상의 사망으로 끝났다. 사건이 있기 약 2주 전에 4명의 방위 의용병 defense volunteer은 몇몇 남자들이 집에 급습해서 국가에서 지급한 산탄총을 훔쳐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들은 약 1주일 후에 체포되었다. 딱바이의 시위자들은 방위 의용병들이 부당하게 체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군중은 수 시간 내에 1,500명에 육박하게 되었다. 경찰은 1,000명이 넘는 시위자들

을 체포했으며 이들을 군 부대에서 심문하기 위해 트럭에 실어서 연행했다. 이동 중에 시위자 78명이 주로 질식에 의해 사망했다.

사망자의 숫자 이외에도 딱바이 시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시위자들은 지역사회 지도자나 태국 남부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체포에 항의하여 집결한 것이 아니었다. 고소된 6명은 “평범한 시민”이었다. 둘째, 크루세 에피소드와는 달리 종교는 시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보도는 시위자뿐만 아니라 고소당한 자들의 종교적 특성을 중시했다. 한 예로 *BBC News*는 “6명의 무슬림 남자”들의 구급에 항의하던 “80명에 가까운 무슬림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sup>7</sup> 또 분쟁의 배경에 대해 언급하면서, 태국 남부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은 말레이 방언인 야위 Yawi를 사용하며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슬람의 규칙과 규정을 따르는 무슬림”이라고 명확히 말했다.<sup>8</sup> 시위자들의 상당수가 라마단 기간 금식을 지키는 경건한 무슬림이기 때문에 힘이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이 사건에 대한 종교적 감정은 더욱 고조되었다. 게다가 언론이 계속해서 불교도와 무슬림 간에 일어난 비극으로 묘사했으며, 이것은 인도네시아, 이란, 파키스탄을 포함한 많은 이슬람 국가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특히 딱바이 시위 후 비교적 소규모의 폭력에 관한 언론 보도조차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다. 2004년 10월 군 소재의 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출근길에 총격 당하여 병원에 실려 가는 도중에 사망한 사건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Bangkok Post*는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출근 길에 총격 당한 학교 교사”라는 제목을 달았다.<sup>9</sup> 로이터 통신은 이 사건에 대한 보도를 “대부분 무슬림인 태국 남부에서 무슬림 민병대로 의심되는 자들이 불교도 학교 교사를 살해했다”라는 문구로 시작했다.<sup>10</sup> *Straits Times*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이 교사는) 10월 25일 나라티왓 주의 딱바이 군에서 있었던 격렬한 시위를 해산한 태국 보안부대에 의해 최소 85명의 무슬림이 사망한 후, 이슬람 민병대가 그에 대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보복 행위로 목숨을 잃은 불교도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sup>11</sup> 사실만을 놓고 본다면 부정확한 보도 기사는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종교를 분쟁에 연루시키는 방식과 또 태국 남부의 소요의 성격이 전적으로 종교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유지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1970년대 이후 태국 남부의 소요에 대해 종교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왔다. 거의 모든 폭동 행위는 그것이 반란과 연관된 것인지 혹은 다른 것인지를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무슬림” 혹은 “이슬람” 민병대로 의심되는 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며, 그 희생자는 항상 “불교도”로 묘사되어 왔다. 분쟁에 대한 어떤 보도들은 태국 남부의 주민들이 종족적으로 말레이인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처럼 태국 남부의 분쟁을 전적으로 종교적인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종교적 분쟁에 깔려 있는 측면들

<sup>7</sup> “Thai Protestors Die in Custody.” *BBC News*, 2004/10/26.

<sup>8</sup> “Thailand’s Restive South.” *BBC News*, 2004/10/26.

<sup>9</sup> “Schoolteacher Gunned Down on Way to Work.” *Bangkok Post*, 2004/12/15.

<sup>10</sup> “Buddhist Teacher Killed in Thai Muslim South.” *Reuters Foundation AlertNet*, 2004/12/14.

<sup>11</sup> “Buddhist Teacher Shot Down in Thai South.” *Straits Times Interactive*, 2004/12/15.

태국 남부에서의 불화를 전적으로 종교적 분쟁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정확하며 이러한 행동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 분쟁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태국 남부의 폭동 사태의 경우, 종족적 분쟁이 가질 지리적인 범위는 종교적 소요에 비해 훨씬 작다. 말레이인들은 이웃하는 말레이시아에서만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종족적 분쟁이 일어나도 그것은 오직 국경 건너편에서만 지원과 동정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종교적 분쟁은 9·11 테러 이후 과대망상적인 심리적 경향을 자극한다. 이는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 종교적 동기를 가진 테러리스트들이 태국 남부의 동지를 돕기 위해 몰려오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역사적으로 태국 남부의 폭동 세력에 대한 지원은 말레이시아의 클란탄 주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태국의 통치를 벗어나기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한 것은 바로 클란탄-빠따니 축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말레이 민족주의가 성행한 수십 년 간, 후원은 주로 클란탄에서 왔다. 이 단계에서 외부 테러리스트 그룹들은 분쟁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폭력의 강도가 심해지거나 불만이 확대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외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초대받지 않은 외부 테러리스트 조직들로부터 지원이 때로는 심지어 요청되지 않은 지원까지도 오도록 만드는 것은 분쟁을 그 본질상 점점 더 종교적인 것으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외부 지원이 제공되더라도, 그것이 태국 남부에서 반드시 성전(jihad)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005년 4월 3일 핫야이(Hat Yai) 공항과 프랑스인이 소유한 송클라(Songkhla) 주의 까르푸(Carrefour) 슈퍼마켓 앞에서 발생한 폭파사건은 최소한 2명의 사망자와 외국인 4명을 포함한 75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사건을 보도한 CNN은 이 사건이 “무슬림 반란 세력이 작전 반경을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냈다”고 말했다.<sup>12</sup> 하지만 이처럼 분쟁의 확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보도들은 반란 세력이 태국 남부 지방들<sup>13</sup> 범위를 넘어선 목표물을 겨냥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 실패했다. 1977년 6월에 반란 민병대는 방콕의 돈므앙(Don Muang) 국제공항을 공격했고, 1980년 7월에는 방콕의 몇몇 운송 기반시설을 폭파했다. 그러므로 “무슬림 반란 세력”을 분쟁의 지리적 확산과 결합시키는 것은 (언론의) 자기 이익만을 위한 것이다. 2005년 9월 20일 태국 해병대원 2명이 탄용 리모(Tanyong Limo) 마을에서 인질로 붙잡혔다. 그들을 구조하기 위한 시도의 와중에서 반란 세력은 말레이시아 기자들이 사건을 보도하기를 요구했는데, 이는 반란군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이웃하는 말레이시아에서 주로 온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장기화되는 분쟁은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데 일조한다. 폭동을 종족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계속 묘사하는 것은 타이인-말레이인 분열을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비슷하게 분쟁을 종교적인 것으로 계속 묘사하는 것은 불교도-무슬림 분열을 촉진시킨다. 한 사회에서 종교적 구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중요하다. 하지만 태국 남부의 반란에 대한 묘사가 기존의 사회적 분열을 어떻게 심화하거나 완화

<sup>12</sup> “At Least Two Dead in Thai Blast.” CNN, 2005/04/04.

<sup>13</sup> (역자주) 나라티왓, 빠따니, 사똘, 알라 등 네 지방을 가리킨다.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이것은 특히 태국 남부 분쟁의 경우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분쟁을 계속 종교적인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반란에 가담하지 않는 국가 내 나머지 무슬림들도 그 분쟁에 함께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태국의 무슬림들은 일반적으로 묘사되는 것처럼 동질적이지 않다. 태국의 무슬림들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는 그들의 보다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 상당수는 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동화해 있다. 중부 타이인 무슬림 Muslim Siamese, 참족 Cham 무슬림, 서아시아인, 남아시아인, 인도네시아인, 화인 무슬림, 그리고 삼삼족 Samsam<sup>14</sup>이 이에 해당한다.

게다가 태국 남부의 분쟁은 대부분 빠따니, 알라, 나라티왓에 국한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역시 빠따니 술탄국의 속국이었던 사똘 지방은 어떠한 의미 있는 정치적 저항이나 큰 폭력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 사똘의 이러한 다른 점은 바로 클란탄 왕국이 아닌 크다 왕국의 영향 하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똘 사람들은 말레이 조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레이인 종족 역사에 별다른 애착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스스로 태국 사람으로 간주한다. 그뿐 아니라 사똘 주민의 상당수는 타이어를 사용하며 빠따니-말레이 방언을 알아듣지 못한다.<sup>15</sup> 그러므로 계속해서 태국 남부 분쟁의 종교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똘에서 폭력이 왜 없는지를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심결에 그 지방 주민들에게 반란군이라는 누명을 씌우게 될 것이다. 게다가 전적으로 종교적인 분쟁이라는 견해는 빠따니, 알라, 나라티왓의 희생자 대부분이 무슬림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셋째로 폭력 사태의 성격에서 주요 배역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 종족적 분쟁에는 태국과 남부 지역의 반란 단체들 외에도 말레이시아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종교적 분쟁에서는 이슬람 비정부기구들뿐만 아니라 태국 밖의 종교적인 테러조직들의 역할도 등장할 수 있다. 2005년 3월 인도네시아 최대 무슬림 조직인 나흐다툼 울라마 Nahdlatul Ulama의 의장이 태국 남부 방문 중 분쟁에 대한 태국 정부의 고압적인 반응에 대해 질문했다는 사실은 반란의 종교적 성격이 분쟁 관계자들의 범위를 어떻게 팽창시키고 있는지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국제 이슬람 조직들과 민병대 단체들은 그들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분쟁의 종교적 측면을 과장할 것이다. 이슬람회의기구 Organization of Islamic Conferences는 태국 남부의 폭력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가운데 2005년 6월에 진상 조사의 임무를 띤 대표단을 파견했다. 한 달 후 태국의 깐타티 수파몽콘 Kantathi Suphamongkon 외무부장은 이슬람회의기구가 남부 지방들에서의 분쟁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으며 그 사태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5년 10월 이슬람회의기구는 “태국 남부

---

<sup>14</sup> (역자주) 삼삼족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국경 지방에 사는 주민 집단으로 무슬림이지만 타이어를 일상언어로 쓴다. 이 점에서 이들은 말레이어를 쓰는 말레이계 타이 무슬림들과 다른 정체성을 갖는다. 삼삼족에 대해서는 Ryoko Nishii. “The Emergence and Transformation of Peripheral Ethnicity – Sam Sam on the Thai-Malaysian Border.” 5<sup>th</su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ai Studies, SOAS, London, 1993을 참조.

<sup>15</sup> 빠따니-말레이 방언은 클란탄-말레이 방언과 비슷한 반면에, 사똘의 크다-프를리스 말레이 방언은 타이어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Omar Farouk. “The Muslims of Thailand – A Survey.” In Andrew Forbes, ed. *The Muslims of Thailand: Historical and Cultural Studies*. Vol. 1. Bihar: Centre for Southeast Asian Studies, 1988: 15.

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계속된 폭력 행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해 태국 정부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또 하나의 사건이 유엔의 관심을 끌었다. 2005년 8월 29일 크게 존경 받던 종교 지도자 사토파 유소Satopa Yusoh가 살해되었고 다음날 131명이 말레이시아로 도망쳤다. 태국 정부가 국제 기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은 망명 희망자들과의 인터뷰를 시작했다.

이와 같이 분쟁에서 외부 역할들의 참여로 인해 태국 남부의 소요 사태의 해결은 이제 그들의 관심도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탁신Thaksin 정부는<sup>16</sup> 분쟁의 국제화를 방지하는데 바쁜 가운데 태국 남부의 불화는 국내 문제라는 것을 국제 사회에 설득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것은 방콕 정부와 이슬람회의기구, 유엔난민고등판무관, 그리고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간의 신랄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그러한 접근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과 자원을 소모한다는 점에서 단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5 2월 총선에 남부 지방들의 투표율이 높았다는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총알보다는 투표를 선호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타이락타이Thai Rak Thai 당을 거부함으로써, (분쟁에 대한) 탁신 정부의 고압적인 대응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출했다. 방콕 정부는 이런 계기를 기회로 삼는 대신에, 분쟁의 외부적 측면에만 몰두되어 있다. 결국 소요 사태를 계속 종교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분쟁의 국제화에 기여할 뿐, 반란 사태에 대한 방콕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다.

## 결론

이 논문은 태국 남부 분쟁이 타이인과 말레이인 간 분쟁에서 불교도와 무슬림 간 분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했다. 태국 남부 지방인 얄라, 빠따니, 나라티왓 등의 반란 활동은 근래의 현상이 아니며 이미 17세기에 첫 대규모 반란이 발생했다. 19세기 이후 빠따니, 클란탄, 크다 등의 술탄국들은 태국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이 당시에 일어난 반항은 종족적 또는 종교적 결속 개념에 의해 추진되지 않았다. 그것은 귀족주의적 도전의 양상을 띤 것으로, 통치자들 간의 권력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다가 20세기 전반기에 종족적 결속이 점차 분쟁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남부 지방에 타이어를 강요하는 방콕 정부의 정책은 말레이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나아가서 말레이 문화에 대한 침해로 인식되었다. 1940년대에 주변부로 밀린 귀족 엘리트들은 태국 정부에 대항하기 위한 지지세력을 모으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던 말레이 민족주의를 이용했다. 이로 인해 몇몇 반란 단체는 국경 너머의 말레이시아의 말레이인들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또한 구조화된 저항의 형태를 낳았으며 분쟁의 말레이적 요소를 옹호하는 GAMPAR나 BRN와 같은 반란 조직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1970년대 동안 분쟁의 종교적 성격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소요의 대결 당사

---

<sup>16</sup> (역자주) 태국의 탁신 정부는 2006년 10월에 군부 쿠데타로 무너졌다.

자는 이제 갈수록 불교도와 무슬림인 것으로 그려졌다. 이러한 변화에는 내적 및 외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방콕 정부는 말레이인들의 운명을 태국 내 나머지 무슬림들과 묶어놓기 위해 “타이 무슬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태국 사회 내 종교적 분열을 가중시켰다. 말레이시아의 지원이 별로 없었던 것도 (종족적 차원의) 말레이인 저항이 침체한 것에 기여했다. 더군다나 중동에서 이슬람 고등 교육을 받고 태국으로 돌아온 학생들은 남부 지방들에서 종교적 의식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최근에는 9·11 이후의 분위기와 크루세 모스크 학살 사건 역시 태국 남부의 분쟁을 그 성격에 있어서 종교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20세기 후반기에는 태국 정부에 대한 투쟁에 있어서 말레이 종족적 동기보다는 이슬람적인 것을 강조하는 PULO나 GMIP와 같은 반란 조직이 발생했다.

이 논문은 태국 남부의 소요에 종교적 측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전적으로 불교도와 무슬림 간의 문제로 보는 것은 그릇된 것이며, 이러한 가설은 틀린 결론을 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반항적인 태국 남부의 타이인과 말레이인 간 종족적 불화는 기껏해야 이웃하는 말레이시아로 퍼질 뿐이다. 분쟁에 대한 지원과 동정은 실제로는 주로 클란탄 주에서 온다. 그러나 불교도와 무슬림 간 종교적 갈등은 분쟁이 동남아시아 밖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준다. 하지만 태국 남부의 반란 그룹들에 대한 외부적 지원은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 이런 미약한 연결 관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을 “이슬람” 혹은 “무슬림” 민병대로 분류하는 것은 분쟁을 보다 종교적인 노선으로 왜곡시킬 뿐이다. 게다가 소요에 대해 종교적 관점을 되풀이하는 것은 태국 사회의 종교적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로 인해 한 때 빠따니 왕국의 일부였던 사똘을 비롯한 태국 내 나머지 무슬림들을 무심코 대립 당사자 측으로 밀어 넣게 될 수도 있다. 끝으로, 종교적 갈등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래야 할 관계자들의 수를 크게 증대시킬 것이다. 이슬람회의기구나 나흐다툼 울라마와 같은 조직들의 공식 성명은 태국 남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견해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반항적인 태국 남부의 불화는 여전히 타이인과 말레이인 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반란 단체들이 내놓는 종교적 수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핵심 투쟁은 여전히 말레이인들을 위한 것이다. 태국 정부로서는 무슬림들의 대다수가 태국 국민국가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남부의 반란이 불교도와 무슬림 간의 분쟁으로 취급된다면, 그 소요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정책은 태국 내 다른 지역의 무슬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분쟁을 초점을 보다 잘 맞추어 해결하려면, 대립 세력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